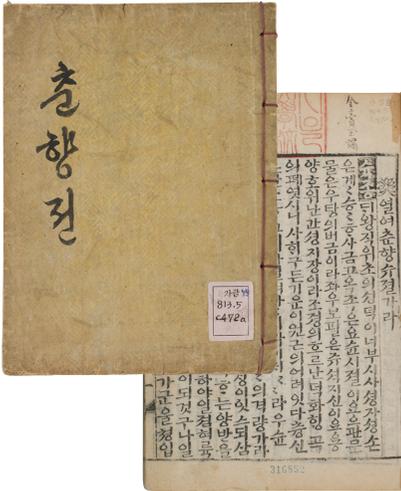


전라도고부군소재
용동궁전답양안
全羅道古阜郡所在龍洞宮田畝量案
Jeollado Gobugun Sojae Yongdonggung
Jeondap Yang-an, Report on Farmlands
and Fields of the Yongdong palace
located in Gobu-gun, Jeolla-do

19세기 전라도 고부군의 용동궁 소속 전답을 측량하여 작성한 토지대장. 토지 면적과 소유자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당시 농업경제의 실상과 토지소유 관계를 밝혀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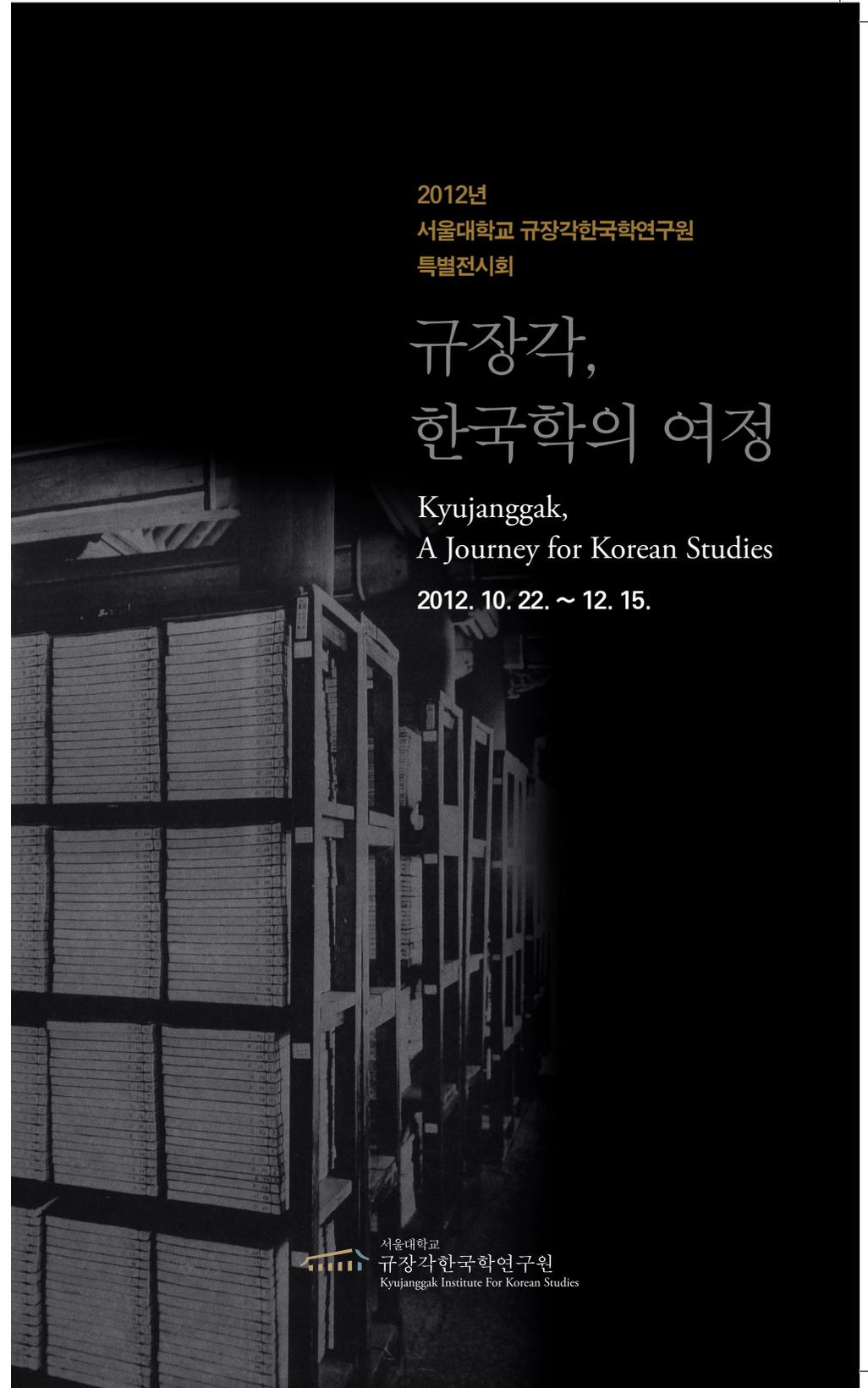


열녀춘향수절가
Yeollyeo Chunhyang Sujeolga, The Tale of
Chunhyang

완판(完板) 84장본 『춘향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로 국문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며, 공연·예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재창조되고 있다.

- 전시 연구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를 활용한 한국학 저서 중에서 선정하였다.
- 해방 이후 간행된 도서 중에서 개막일 현재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연령대에 있는 원로 학자의 저서를 전시 대상으로 하였다.
- 전시 도서는 학자 1인당 1종으로 한정하였으며, 학문적 대표성과 함께 교육 효과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이번 전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인문한국(HK) 사업 "조선의 기록문화와 법고창신의 한국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3동 / TEL 02-880-5144 / FAX 02-883-3012



201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특별전시회

규장각, 한국학의 여정

Kyujanggak,
A Journey for Korean Studies
2012. 10. 22. ~ 12. 15.

규장각, 한국학의 여정

201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특별전은 규장각 도서를 바탕으로 쌓여 온 해방 이후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자료와 함께 되돌아보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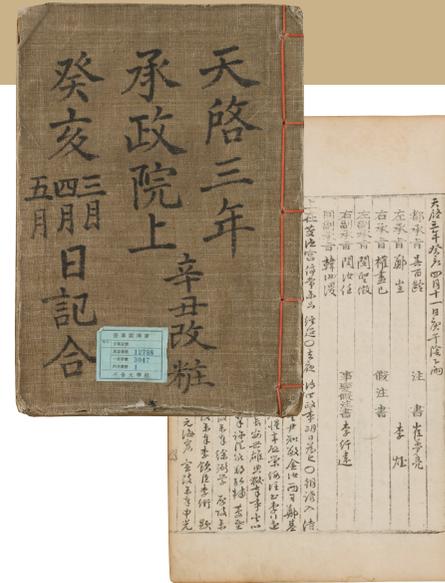
규장각 자료는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학술 분야의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간 학자들의 손길을 거치며 과거 왜곡되어 온 한국사상을 바로잡고 한국문화의 특징을 밝히는 데 중심 자료가 되어 왔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하여 어떤 자료가 어느 분들의 노고를 통해 어떠한 연구 성과로 이어졌는지 실물과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가 학문과 기록을 소중히 여겼던 한국의 전통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한국학의 폭과 깊이를 음미하며 선인들과 오늘날 학자들의 저술에 담긴 시대의 고민을 성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2012 special exhibition at K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juxtaposes Kyujanggak documents with modern studies on them, is a valuable opportunity for us to look back at the results produced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since Korea's liberation.

The Kyujanggak collection comprises significant and valuable resources in a wide array of study areas, including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music and art. The archives preserved at Kyujanggak have enabled various scholars to correct distorted representations of Korean thought and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Visitors to this exhibition wi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kind of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by which scholars by comparing the fruit of their research with the original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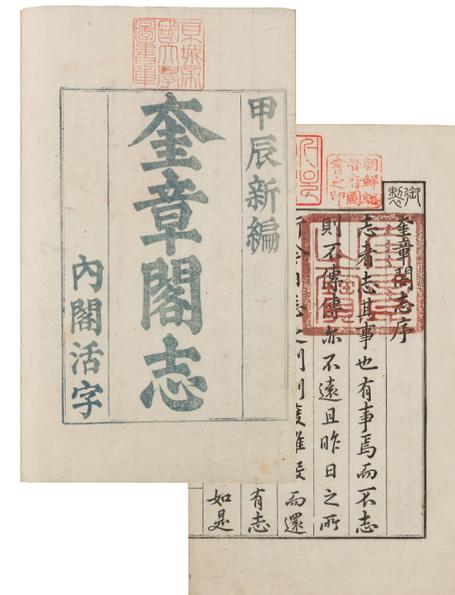
We hope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take one step closer to traditional, which valued academic research and record keeping, to dwell upon the depth and length of Korean Studies, and to reflect upon the concerns of their predecessors in history.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Seungjeongwon Ilgi, Records by of the Royal Secretariat

조선시대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기록한 일기. 왕의 동정과 국정 전반에 관한 방대하고 생생한 기록물로서, 조선시대 국가 운영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학자들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다.



규장각지
奎章閣志

Kyujanggak Ji, Record of Kyujanggak

규장각의 설치 의의와 관련 규정을 수록한 책. 규장각의 역사와 정조대 문화정치 연구의 핵심 자료이다.